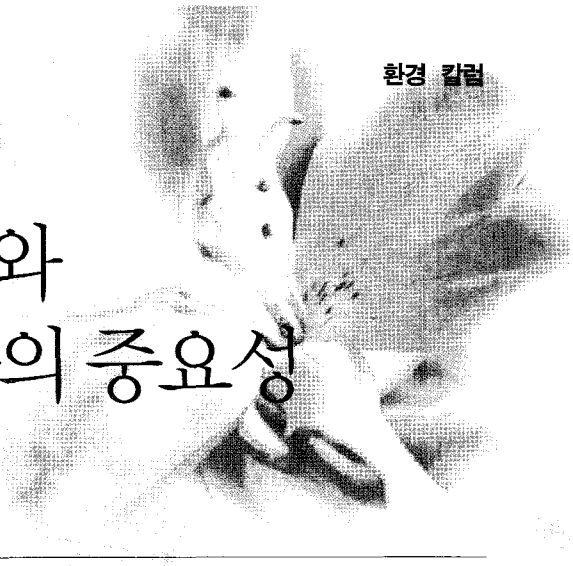

녹색소비와 제품 전과정 평가의 중요성

김만영
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

대량생산 · 대량소비가 지속되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 소비가 급증하고,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문제가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. 청정생산기술이 도입되고 환경산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대폭 줄이고는 있지만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. 때문에 제품을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자원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.

최근 들어 부쩍 논의가 잦아지고 있는 친환경제품의 구매 및 소비, 이른바 '녹색구매 · 녹색소비'는 대량생산 · 대량소비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행동이나 시스템이다. 이때 "어떤 제품이 친환경적인가"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. 제품의 환경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료채취에서부터 제조 · 유통 · 소비 ·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과정(whole life cycle)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한다.

포장 완충재로서 스티로폴은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제조단계에서 자원 사용이 매우 적고, 유통단계에서 연료 사용을 크게 줄이는 등 제품의 전과정 측면에서 본다면 친환경적인 면이 많다. 문제는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이며, 재활용률을 높이면 제품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다. 천연원료가 아님을 들어 원료의 재생가능성(renewability)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, 종이에도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.

전과정 평가(LCA) 기법을 도입하면 제품의 환경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, 환경성 향상을 위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다.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녹색구매 · 녹색소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. 이때 전과정 평가에서 우수한 환경성을 나타내는 제품이 대상제품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.